

## 痞滿에 對한 文獻的 考察

卞 俊 哲\*

### I. 緒 論

痞滿은 心下가 痞塞하면서 滿悶하며 만지면 無形하고 痛症이 없는 病症으로, 胸腹間의 氣機가 阻塞不舒하는 一種의 自覺症狀으로 心下 胃脘部位가 滯塞滿悶하며 按하면 柔軟不硬한 것을 말한다<sup>1)2)</sup>.

痞에 대한 最初의 記載는 <素問·六元正紀大論><sup>3)</sup>에서 “痞堅, 腹滿”으로 記述되어 있으며 이를 通常의으로 言及되고 있는 痞證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內容이 貧弱하며, 또한 本書에서는 否<sup>4)</sup>, 滿<sup>5)</sup>, 否塞<sup>6)</sup>, 否隔<sup>7)</sup> 등의 用語로 本病에 대해 言及하고 있다.

歷代醫書에서 痞는 痞塞不通한 것이고 滿은 脹滿不行한 것으로 痞와 滿을 區分하여 說明한 바도 있으나, 臨床所見에서 흔히 同伴하여 나타나므로 痞滿으로 붙여 稱한다.

內經<sup>8)</sup>에서는 “太陰所至 爲積飲否膈” “土曰 備化 備化之紀”라 하였으며, 朱<sup>9)</sup>는 “太陰濕土 爲積飲痞膈”이라하여 本病의 病因病機가 脾胃의 臟腑와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言及하고 있다.

痞滿은 脾胃系疾病에서 常見하는 病症中의 하나로 西醫學에서 慢性胃炎, 胃神經官能症, 胃下垂, 消化不良, 胃腸功能紊亂 등의 疾病을 包括한다<sup>10)</sup>.

\* 경산대학교 구미한방병원 비계내과학교실

이에 本論者는 臨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痞滿證에 대해 歷代醫家들의 諸文獻을 通해 그 原因 및 治法, 治方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以後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發表하는 바이다.

### II. 本 論

痞滿에 대한 記載는 內經에서 言及되어진 以後 많은 醫書에서 論議되어져 왔다. 이에 各 醫書에서의 原因 및 治法治方에 대한 內容을

- 1) 具本泓. 東醫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2; 185.
- 2) 董建華. 內科心法.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127.
- 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成出版社. 611. “<六元正紀大論>水鬱之發……痞堅, 腹滿”
- 4)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揭書, 551. “<五常政大論>備化之紀……其病否”
- 5)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揭書. 586. “<六元正紀大論>四之氣涼乃至…其病滿”
- 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揭書. 554. “<五常政大論>卑監之紀……其病流滿否塞”
- 7)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揭書 590 “<六元正紀大論>四之氣畏火臨…天氣否隔”
- 8)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揭書. 619.
- 9) 朱震亨. 脈因證治. 啓業書局, 103.
- 10) 具本泓. 東醫內科學. 前揭書. 185.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內經<sup>11)</sup>에서는 臟이 寒하면 滿病을 生한다 하였으며 또한 太陽이 復하여 寒邪가 心胃에 生하면 胸膈이 이롭지 못하고 心痛否滿한다고 하였다.

張<sup>12)</sup>은 病이 陰에서 發했는데 도리어 下法을 用하거나 傷寒病에 大下한 後에 다시 發汗하면 痞가 된다고 하였으며, 治方에 있어서 痞證에는 半夏瀉心湯으로 治하며 關上部位의 脈이 浮한 者는 大黃黃連瀉心湯으로 主之하며 惡寒汗出者는 附子瀉心湯으로 治하고 脇下有 水氣 下痢者는 生薑瀉心湯을 用하며 胃中虛 客氣上逆한 者는 甘草瀉心湯으로 主之함을 言及하고 있다.

巢<sup>13)</sup>는 營衛가 不和하고 陰陽이 隔絶하며 風邪가 外入하여 衛氣와 相搏하면 血氣가 막혀서 不通하게 되어 痞證이 發生하며 그 病因으로는 憂悲氣積이나 墜墮 或은 內傷의 所致임을 言及하고 있다. 또한 治法에서 補養宣導의 大法를 밝히고 있다.

王<sup>14)</sup>은 心下の 痞堅은 氣가 胸中에서 結하여 胸滿하고 脇下の 逆氣가 心을 損傷하면 枳實湯으로 治한다 하였다.

趙<sup>15)</sup>는 傷寒病에 醫者가 下之하여 邪氣가 入裏하여 胃中이 虛하고 客氣가 上逆하여 心下滿하며 不痛하고 만지면 不堅한 것이 痞이며, 그 治法에 있어서 瀉心이 마땅함을 言及하고 있다. 또한 處方에 있어서 仲景의 五種瀉心湯을 引用하고 있다.

李<sup>16)</sup>는 風寒의 邪氣가 表에서 裏로 傳하여져 寒이 熱로 變하여 胃實腹滿한다고하여 本病의 病因病機에 關하여 記述하고 있으며, 治方에 있어서 消痞丸, 失笑丸, 黃連消痞丸 등을 言及하면서 各各의 主治症에 대해 記述하고 있다.

劉<sup>17)</sup>는 積飲, 痞, 隔, 中滿의 原因에 대하여

11)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掲書. 644. “<至眞要大論>太陽之復…心胃生寒 胸膈不利 心痛否滿”

比較說明하고 있으며 痞는 精神營衛와 血氣津液의 出入流行이 閉密하여 이루어짐을 記述하고 있다.

朱<sup>18)</sup>는 痞는 食積과 濕이 兼하여 있어 發生하는 것으로 心下痞에는 枳實과 炒黃連을 반드시 使用하며, 稟受虛弱으로 心下痞한 者는 白朮, 山楂, 神麩, 麥芽, 陳皮로 治하고, 食後에 寒을 感受하여 心下痞한 者는 藿香, 草豆蔻, 吳茱萸, 砂仁으로 治한다 하였다.

朱<sup>19)</sup>는 또한 飲食多傷으로 久滿하여 不食하는 者는 寬中進食丸으로 治하고 憂鬱傷脾로 不

- 12)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88, 203-6. “病發於陰而反下之因作痞” “滿而不通者…宜半夏瀉心湯, 心下痞按之濡…大黃黃連瀉心湯主之, 心下痞而復惡寒汗出者附子瀉心湯主之, 傷寒汗出解之後…生薑瀉心湯主之, 心煩不得安…甘草瀉心湯主之”
- 13)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 集文書局, 1976; 208. “夫八否者營衛不和陰陽隔絶而風邪外入…由憂悲積氣或墜墮內損所致…補養宣導”
- 14) 王 焘. 外臺秘要. 文光圖書有限公司, 340. “心中痞堅 留氣結於胸中 胸滿脇下逆氣搶心枳實湯方”
- 15) 趙 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579-80. “傷寒病發于陰 而醫誤下之…法宜瀉心…半夏瀉心湯…甘草瀉心湯”
- 16) 李 杲. 蘭室秘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7; 17-8.
- 17) 範永升. 素問玄機原病式新解.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117. “謂精神營衛 血氣津液 出入流行之紋理閉密而爲痞也”
- 18) 朱震亨. 丹溪心法. 臺北: 五洲出版社, 1969; 285. “痞者有食積兼濕 心下痞必用枳實炒黃連如稟受所弱…白朮山楂神麩陳皮 食後感寒…藿香草豆蔻吳茱萸砂仁”
- 19) 朱震亨. 丹溪心法心要.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1985; 103. “飲食多傷爲久滿不食用寬中進食丸 憂鬱傷脾不思飲食炒黃連酒芍藥生莎末青六末”

思飲食하는 者는 炒黃連, 芍藥, 生莎末, 靑六末을 用한다 하였으며, 脈因證治<sup>20)</sup>에서는 本病의 原因을 誤下로 因한 陰虛와 食積痰滯로 보았으며 治法에 있어서 黃連을 君으로 한 瀉心湯을 爲主로 하여 心下의 土邪를 瀉한다 하였다.

李<sup>21)</sup>는 雜病食積에 下法을 太過하거나 잘못하여 下法을 用하여 痞가 된 경우에는 血藥을 兼하여 理脾胃함이 마땅하며, 痰火로 인한 경우에는 小陷胸湯 혹은 枳梗二陳湯을 用하며, 七情氣鬱로 인한 경우에는 木香化滯湯 혹은 順氣導痰湯을 用하고, 稟受中虛로 인한 경우에는 六君子湯加香附子砂仁으로 治療함을 言及하고 있다.

張<sup>22)</sup>은 痞證의 虛實辨別에 關하여 論하고 있으며 특히 治法에 있어서 實痞에는 散法消法이 可하고 虛痞에는 溫補의 法이 可하다 하였으며, 虛寒之痞의 原因으로 憂思 或 勞役過度, 飢飽失時 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治方에 있어서 食滯가 남아 있으면서 痞滿한 者는 大和中飲 或 和胃飲, 枳朮丸으로 治하며, 怒氣로 肝氣를 傷하여 痞한 者는 解肝煎으로 治함을 言及하였다.

虞<sup>23)</sup>는 胸中の 氣가 虛하여 心의 分野에 下陷함으로써 된 心下痞는 血藥을 兼하여 胃氣를 升提함이 마땅하며 만약 利氣之劑를 過하게 使用하면 痞證이 더욱 甚해짐을 言及하였다. 또한 治療에 있어서 實痞에는 厚朴枳實로 主之하고 虛痞에는 芍藥陳皮로 主之함을 밝히고 있다.

龔<sup>24)</sup>은 痞滿은 七情內傷, 六淫外侵, 醉飢餓失節, 房勞過度한 즉 脾虛受傷하여 轉輸를 失職하므로써 運化機能이 失調된 것으로, 香砂養胃湯이나 加減枳殼丸을 用하여 調養脾胃함으로써 心肺의 氣를 下降하고 肝腎의 氣를 上升시켜야한다 하였다.

龔<sup>25)</sup>은 또한 食痰積으로 因하여 痞한 者는

黃連, 黃芩, 枳實의 苦味로 泄하고, 生薑, 半夏, 厚朴의 辛味로 散하고, 人蔘, 白朮의 甘味로 補하고, 茯苓, 澤瀉의 淡味로 滲한다 하였다.

王<sup>26)</sup>은 痞는 心下에 位置하며 그 病이 無形하다고 하였으며 佛鬱로 因하여 壅塞不通하여 痞한 者는 火와 濕이 原因임을 言及하였다.

江<sup>27)</sup>은 痞滿은 勞役, 飲食失節의 原因에 憂思와 같은 七情의 變化가 加하여져서 이루어짐을 記述하였다.

皇<sup>28)</sup>은 痞滿은 中氣不足, 飲食痰結 或은 濕

21) 李 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379-80. “雜病食積下之太過…宜理脾胃兼以血藥 痰火因…小陷胸湯或枳梗二陳湯 七情氣鬱…六君子湯加香附砂仁”

22) 張介賓. 景岳全書.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0; 411-2. “凡有邪有滯而痞者實痞也…實痞實滿者可散可消虛痞滿者非大加溫補不可此…虛寒之痞凡過於憂思或過於勞役

23)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278. “胸中之氣因虛而下陷于心之分野故心下痞宜升胃氣以血藥兼之…實痞者厚朴枳實主之 虛痞者芍藥陳皮主之”

24)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1991; 167. “皆是七情內傷六淫外侵或醉飽飢餓失節…治用香砂養胃湯加減枳殼丸調養脾胃使心肺之陽下降肝腎之陰上升”

25)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3; 183. “有因食痰積…治之用黃連黃芩枳實之苦以泄之 生薑半夏厚朴之辛以散之 人蔘白朮之甘溫以補之 茯苓澤瀉之淡以滲之

26) 王肯堂. 六科准繩. 上海: 上海鴻寶齋書局, 1982; 104. “因而佛鬱壅塞不通爲痞者火於濕也”

27) 江 權.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0. “先因勞役飲食失節加之憂思病結痞”

28) 皇甫中. 明醫指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137. “有中氣不足不能運化者 有飲食痰結不能施化者 有濕熱太甚而成者 當隨證分消

20) 朱震亨. 脈因證治. 前揭書, 103. “誤下陰虛食積痰滯…治法以瀉心湯黃連爲君瀉心下之土邪”

熱太甚으로 因하여 成하니 各各 隨證分消함이 마땅하며, 虛者는 補中益氣湯으로 實者는 疏導로 治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葉<sup>29)</sup>은 六淫外侵으로 因한 痞滿에는 仲景의 瀉心湯을 用하고 脾胃內傷으로 痞한 것은 仲景의 苓姜桂甘法을 用한다 하였으며, 治痞에 있어서 苦味로 泄하고 辛甘味로 散하는 二法을 說하였다.

張<sup>30)</sup>은 痞滿은 痰與氣搏으로 流通하지 못하므로 생긴다 하였으며 治方에 있어서 瀉心湯類를 選用함을 言及하고 있다. 또한 肥人의 心下痞悶은 內에 濕이 있기 때문에 二陳湯加味을 用하며, 瘦人의 心下痞悶은 中焦에 鬱熱이 있기 때문에 三黃에 加味하며, 老人과 虛人은 脾胃虛弱으로 因하며 九味資生丸을 用함을 言及하고 있다.

林<sup>31)</sup>은 傷寒으로 因한 痞는 苦泄이 마땅하며 雜病으로 因한 痞는 辛散함이 마땅하며, 脾虛失運하여 痞한 者는 溫補脾元의 治法이 마땅하고 脾虛氣滯로 痞한 者는 行氣散滿의 法을 用하고, 暴怒傷肝으로 痞한 者는 舒其鬱의 法을 大法으로 삼고 있다.

吳<sup>32)</sup>는 傷寒에 下早한 즉 痞硬하며 痞悶은 氣가 不宣하여 壅塞한 것으로 그 治方에 있어서 大黃黃連瀉心湯, 附子瀉心湯, 半夏瀉心湯, 生薑瀉心湯 甘草瀉心湯을 言及하고 있다.

李<sup>33)</sup>는 心下痞悶은 脾胃虧虛로 濁氣와 痰이 挾하여 運化하지 못하므로 發生하는 疾患으로 初에는 二陳湯, 越鞠丸, 芩連의 類로 舒鬱化痰降火함이 마땅하며, 久에는 人蔘, 白朮, 茯苓, 甘草의 類로 中氣를 固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何<sup>34)</sup>는 痞滿의 原因을 中氣不運, 寒, 熱, 食滯痰停, 氣結怒鬱, 脾濕不化, 血瘀不行으로 보았으며, 그 治法과 治方에 있어서 下之太過하여 痞한 者는 血藥을 加하여 胃氣를 升提하며, 鬱者는 越鞠丸 逍遙散을 選用하며, 濕者는 平胃散合五苓散을 用하며, 脾弱不運者는 四君子湯이나 異功散으로 治療함을 言及하였다.

周<sup>35)</sup>는 本病이 土邪로 因한 病이라 하였으며 通治方으로 桔梗枳殼湯, 解鬱和中湯, 二陳湯加減을 記述하였다.

### Ⅲ. 考 察

痞滿은 心下部가 閉塞不通하고 胸膈部位가 滿悶不舒하며 外部로는 脹急의 形態가 없고 만지면 柔軟하며 痛症이 없는 症候를 意味하는 것으로, 歷代文獻에는 痞를 痞塞不通 滿을

- 29)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3; 243. “六淫外侵用仲景瀉心湯脾胃內傷用仲景苓薑桂甘法 治痞之以苦爲泄辛甘爲散二法”
- 30) 張 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08-9. “諸痞塞…痰與氣搏不得流通…諸瀉心湯選用…肥人心下痞悶內有濕痰也二陳湯加枳實芩連…瘦人心下痞悶內鬱熱在中焦三黃加枳實以導之…老人虛人脾胃虛弱轉運不及飲食不化而作痞者九味資生丸”
- 31) 林佩琴.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1978; 206-7. “傷寒之痞宜苦泄 雜病之痞宜辛散…脾虛失運食少虛痞者溫補脾元 胃虛氣滯而痞者行氣散滿…暴怒傷肝氣逆而痞者舒氣鬱”
- 32) 吳 謙.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12-8.
- 33) 李用粹. 證治彙補. 臺北: 旋風出版社, 1977; 306. “大抵心下痞悶必是脾胃虧虛濁氣挾痰不能運化爲患 初宜舒鬱化痰降火 二陳越鞠芩連之類 久之固中氣 蔘朮苓草之類”
- 34) 何夢瑤. 醫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14-6. “皆由中氣不運 或寒以凝閉 或熱以脹脹 或食滯痰停 或氣結怒鬱 或脾濕不化 或血瘀不行皆能致之…下之太過 升提其胃氣加血藥 鬱者越鞠丸逍遙散 濕者平胃散合五苓散 脾弱不運者四君子湯異功散”
- 35)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1975; 118-9.

虛者補中益氣湯 實者略與疏導”

脹滿不行으로 區分하여 言及한 바도 있으나 大部分 痞滿으로 붙여 稱한다<sup>36)37)</sup>.

內經<sup>38)</sup>에서는 本病에 대하여 否, 滿, 否塞, 否膈의 名稱으로 言及하고 있으며 巢<sup>39)</sup>는 八否, 諸痞의 名으로 稱하고 있으며 朱<sup>40)</sup>는 痞者與否同이라하여 內經의 理論을 따르고 있다.

痞證의 概念에 대해 張<sup>41)</sup>은 心下가 滿悶하나 不痛한 것이라고하여 明確한 記述을 하고 있으며 巢<sup>42)</sup>는 臟腑가 痞塞하여 不通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龔<sup>43)</sup>은 胸腹이 飽悶하여 舒暢하지 못한 것이라고하여 歷代文獻에서 나타난 痞證에 대한 言及은 痞와 滿을 包含하고 있으며 心下部가 滿悶하지만 痛症은 없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 類似한 症狀을 包含하는 脹滿, 結胸, 胸痺와는 區分되어야 한다.

類證과의 鑑別에 있어서 張<sup>44)</sup>은 痞를 結胸과 區分하여 心下가 滿하나 疼痛이 없는 것은 痞로 心下에서 少腹까지 硬滿하고 痛症이 있어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을 結胸으로 定義하였으며, 朱<sup>45)</sup>는 內部에서 痞悶한 感を 느끼지만 外部로는 形體가 없는 것을 痞로 腹內가 脹急하면서 外部에서 腹部가 脹大한 形을 볼 수 있는 것을 脹滿으로 定義하였으며, 또한 金匱要略<sup>46)</sup>에서는 “胸痺而痛 所以然者 胸痺 心痛”라하여 胸痺는 胸中痞塞不通으로 인하여 胸膈部 內外에 疼痛을 일으키는 種類의 病症을 가리키는 것이며 痞滿은 心下痞塞滿悶을 가리키는 것으로 胸痛 등이 症狀이 없는 것을 意味한다.

痞滿의 病因에 대해 言及한 歷代文獻들을 살펴보면 誤下傷中, 飲食阻滯, 七情失和, 脾胃虛弱으로 概括할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言及된 것은 傷寒病을 誤下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張<sup>47)</sup>, 趙<sup>48)</sup>, 李<sup>49)</sup> 등은 傷寒에 汗法을 用하여야 되는데 도리어 下法을 用하므로써 發生하거나 傷寒病에 大下한 後에 다시 發汗하면 發生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傷寒의 邪

氣가 肌表에 있는데 醫者가 오히려 攻裏하면 中氣를 損傷하게 되어 邪氣가 乘虛하여 心下에 結하므로 痞滿이 發生하는 것이다.

飲食失節로 인한 發病도 많은 部分 言及되고 있으며 朱<sup>50)</sup>, 李<sup>51)</sup> 등은 食積, 醉飢餓失節을 痞證의 原因으로 提示하였다. 이는 過食 過飽 또는 生冷한 飲食이 中氣를 損傷함으로써 脾의 運化와 胃의 和降에 影響을 주어 結局 心下痞滿不舒 飲食不振에 이르게 됨을 意味한다.

七情의 變化 또한 本病의 原因으로 言及되고 있으며 巢<sup>52)</sup>, 張<sup>53)</sup> 등은 憂悲, 怒鬱, 暴怒와 같은 七情의 不常을 發病原因으로 記述하였는데 情志의 失和는 氣機逆亂을 招來하여 升降이 失調됨으로써 痞滿을 發하게 된다.

脾胃虛弱에 관한 言及으로 朱<sup>54)</sup>, 皇<sup>55)</sup> 등은 中氣虛弱이 本病의 原因이 됨을 說明하고 있으며 이는 平素 脾胃가 虛弱하여 中氣가 久虛하거나 다른 原因으로 脾胃之氣를 重耗하면 胃의 受納과 脾의 運化를 失調함으로써 痞滿을 發한다 하였다.

- 37) 沈金魚. 實用中醫內科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9; 211.
- 38)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揭書. 551, 554, 586, 590.
- 39) 巢元方. 諸病源候論. 前揭書. 208.
- 40) 朱震亨. 丹溪心法. 前揭書. 285.
- 41) 張仲景. 仲景全書. 前揭書. 188.
- 42) 巢元方. 諸病源候論. 前揭書. 208.
- 43) 龔廷賢. 萬病回春. 前揭書. 167.
- 44) 張仲景. 仲景全書. 前揭書. 203.
- 45) 朱震亨. 丹溪心法. 前揭書. 285.
- 46) 李克光.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17.
- 47) 張仲景. 仲景全書. 前揭書. 204.
- 48) 趙 佶. 聖濟總錄. 前揭書. 579.
- 49) 李 梴. 編註醫學入門. 前揭書. 379.
- 50) 朱震亨. 丹溪心法. 前揭書. 208.
- 51) 李 梴. 編註醫學入門. 前揭書. 379.
- 52) 巢元方. 諸病源候論. 前揭書. 208.
- 53) 張介賓. 景岳全書. 前揭書. 411.
- 54) 朱震亨. 丹溪心法. 前揭書. 285.
- 55) 皇甫中. 明醫指掌. 前揭書. 137.

36) 董黎明.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4; 154.

以上の病因病機에 관해 綜合하여 보면 歷代文獻에서 太陰所至, 濕土之爲病이라하여 本病이 脾胃와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言及하고 있으며, 病因에 있어서 傷寒誤下, 飲食失節, 七情變化, 脾胃虛弱, 痰, 內傷, 濕熱 등의 서로 다른 成因이 있지만 大部分 脾胃가 虛弱하여 內外의 邪氣가 乘襲함으로써 脾氣가 不升하게 되고 胃氣가 不降하여 本病이 發生함을 說明하고 있다.

痞滿의 治法에 대한 歷代文獻을 살펴보면 巢<sup>56)</sup>는 諸痞에는 補養宣導가 治療의 根本임을 밝히고 있으며, 趙<sup>57)</sup>는 痞의 治療에는 瀉心의 法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李<sup>58)</sup>는 理脾胃의 法을 本病의 大法으로 삼고 있으며, 張<sup>59)</sup>은 實痞滿에는 散法과 消法이 可하며 虛痞滿에는 溫補의 法이 可함을 言及하고 있으며, 虞<sup>60)</sup>은 升提胃氣의 治法을 龔<sup>61)</sup>은 調養脾胃의 法을 밝히고 있으며, 皇<sup>62)</sup>은 實證 痞滿에는 疏導의 法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林<sup>63)</sup>은 傷寒으로 因한 痞는 苦泄의 法이 雜病으로 因한 痞는 辛散의 法이 마땅함을 言及하였다.

痞滿의 治方에 關하여 歷代文獻을 살펴보면 王<sup>64)</sup>은 心中痞堅에 枳實湯方을 言及하였으며, 張<sup>65)</sup>, 趙<sup>66)</sup>, 蔣<sup>67)</sup> 등은 心下痞의 症狀에 따라 半夏瀉心湯, 大黃黃連瀉心湯, 附子瀉心湯, 甘草瀉心湯, 生薑瀉心湯을 記述하고 있으며, 李<sup>68)</sup>는 痞의 治療에 있어서 消痞丸, 失笑丸, 黃連消痞丸, 消痞湯의 方에 대하여 說明하고 있으며, 張<sup>69)</sup>은 食滯로 因한 痞滿에는 大和中飲 或 枳朮丸이 可하며 暴怒傷肝으로 因한 痞滿에는 解肝煎 등의 治方을 밝히고 있으며, 龔<sup>70)</sup>은 香砂養胃湯, 加減枳殼丸, 加味二陳湯, 平補枳朮丸 등에 대해 言及하고 있으며, 皇<sup>71)</sup>은 虛證 痞滿에는 補中益氣湯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何<sup>72)</sup>는 越鞠丸, 逍遙散, 四君子湯, 異功散 등의 治方을 言及하였다.

痞滿의 治療에 관해 言及된 單味로 朱<sup>73)</sup>는 心下痞에는 枳實, 炒黃連을 반드시 使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葉<sup>74)</sup>은 上焦不舒한 者は 枳殼, 桔梗, 杏仁으로 開降하여야 한다고 說明하고 있으며, 以外에도 人蔘, 白朮, 茯苓, 甘草, 半夏, 生薑 등이 記述되고 있다.

以上에서 治法과 治方을 살펴본 바 痞滿을 治療할 때는 먼저 虛實의 分辨이 必要하며 本病은 臨床에서 虛實이 서로 兼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消補兼施의 治法이 가장 많이 常用되며, 本病의 主要 表現이 心下痞滿不舒이므로 一般的으로 理氣通導의 治法을 使用하나 지나친 것은 不可하며 또한 長期間 服用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다.

## IV. 結 論

論者は 歷代醫家들의 文獻을 통해 痞滿에 對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結論을 導出할 수 있었다.

1. 痞滿의 原因에 대해 大多數 醫家들이 傷寒病을 誤下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외에

- 
- 57) 趙 佶. 聖濟總錄. 前掲書. 580.
  - 58) 李 梴. 編註醫學入門. 前掲書. 380.
  - 59) 張介賓. 景岳全書. 前掲書. 412.
  - 60) 虞天民. 醫學正傳. 前掲書. 278.
  - 61) 龔廷賢. 萬病回春. 前掲書. 167.
  - 62) 皇甫中. 明醫指掌. 前掲書. 137.
  - 63) 林佩琴. 類證治裁. 前掲書. 207.
  - 64) 王 燾. 外臺秘要. 前掲書. 340.
  - 65) 張仲景. 仲景全書. 前掲書. 205-6.
  - 66) 趙 佶. 聖濟總錄. 前掲書. 580.
  - 67) 蔣寶素. 問齋醫案.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3; 90.
  - 68) 李 杲. 蘭室秘藏. 前掲書. \*17-8.
  - 69) 張介賓. 景岳全書. 前掲書. 411-2.
  - 70) 龔廷賢. 萬病回春. 前掲書. 167.
  - 71) 皇甫中. 明醫指掌. 前掲書. 137.
  - 72) 何夢瑤. 醫編. 前掲書. 215-6.
  - 73) 朱震亨. 丹溪心法. 前掲書. 285.
  - 74)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前掲書. 243.

56) 巢元方. 諸病源候論. 前掲書. 208.

飲食阻滯, 七情失和, 脾胃虛弱, 痰積 등을  
言及하였다.

2. 痞滿의 病機는 大部分 脾胃가 虛弱하여  
內外의 邪氣가 乘襲함으로써 脾의 上升機  
能과 胃의 和降機能의 失調로 要約할 수  
있다.
3. 痞滿의 治法으로는 理脾胃, 調養脾胃, 溫  
補, 散法, 消法 등이 治療의 大法으로 活  
用되었다.
4. 痞滿의 治方에 있어서는 五個瀉心湯類가  
가장 많이 言及되었으며, 單味로는 枳實,  
桔梗, 黃連, 黃芩, 半夏類가 選用되고 있  
다.

## 參考文獻

1. 具本泓. 東醫內科學. 서울: 書苑堂, 1992; 185.
2. 董建華. 內科心法.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2; 127.
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成出  
版社. 551, 554, 586, 590, 611, 619, 644.
4. 朱震亨. 脈因證治. 啓業書局, 103.
5. 張仲景.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1989; 188, 203-6.
6. 巢元方. 諸病源候論. 臺北: 集文書局,  
1976; 208.
7. 王 燾. 外臺秘要. 文光圖書有限公司, 340.
8. 趙 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579-80.
9. 李 杲. 蘭室秘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7; 17-8.
10. 範永升. 素問玄機原病式新解. 浙江: 浙江  
科學技術出版社, 1984; 117.
11. 朱震亨. 丹溪心法. 臺北: 五洲出版社,  
1969; 285.
12. 朱震亨. 丹溪心法心要. 山東: 山東科學技  
術出版社, 1985; 103.
13. 李 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379-80.
14. 張介賓. 景岳全書. 臺北: 臺聯國風出版社,  
1980; 411-2.
15. 虞天民. 醫學正傳. 서울: 醫藥社, 1973;  
278.
16. 龔廷賢. 萬病回春. 서울: 一中社, 1991;  
167.
17. 龔廷賢. 壽世保元.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社, 1993; 183.
18. 王肯堂. 六科准繩. 上海: 上海鴻寶齋書局,  
1982; 104.
19. 江 權. 名醫類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30.
20. 皇甫中. 明醫指掌.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137.
21. 葉天士. 臨証指南醫案. 上海: 上海科學技  
術出版社, 1993; 243.
22. 張 璐.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  
版社, 1990; 108-9.
23. 林佩琴. 類證治裁. 臺北: 旋風出版社,  
1978; 206-7.
24. 吳 謙. 醫宗金鑑.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12-8.
25. 李用粹. 證治彙補. 臺北: 旋風出版社,  
1977; 306.
26. 何夢瑤. 醫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14-6.
27. 周命新.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1975;  
118-9.
28. 董黎明.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  
技術出版社, 1994; 154-62.
29. 沈金魚. 實用中醫內科學. 北京: 中醫古籍  
出版社, 1989; 211-14.
30. 李克光.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217.
31. 蔣寶素. 問齊醫案. 上海: 上海中醫學院出  
版社, 1993; 90.